

중간선거 D-5

‘우먼파워’ 후보들 여성표 기대지 말라

성별보다는 이데올로기 기준 휘트먼 경우 남성보다 더 반대

출마후보의 성별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기준이 됐다.

11월 2일 중간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이 대거 출마, ‘우먼 파워’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여성 후보가 여성들에게 어필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뒤집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공화당 첫 여성 후보로 맥 휘트먼과 칼리 피오리나가 각각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자 공화당에 관심이 없는 여성들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여성들은 같은 여성이라는 점보다는 후보의 캐릭터와 이데올로기를 지지 기준으로 삼았다.

LA타임스/USC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정당을 떠나 휘트먼과 피오리나 두 후보의 캐릭터와 개인적인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제리 브라운(민주당)과 맥 휘트먼(공화당) 후보 중 누구에게 더 신뢰가 가느냐’는 질문에 남성 사이에서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조사됐다. 여성 응답자는 25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졌다. ‘노조와 연합한 브라운 후보와 월가 지지를 얻은 휘트먼 후보 중 어느 쪽이 더 우려

되느냐’는 질문에는 남성이 13포인트 차이로 브라운 후보를 지지한 반면 여성은 1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브라운 후보 지지는 남성이 3포인트 격차를 보인 반면 여성은 무려 21포인트나 높았다.

연방상원의원 후보인 피오리나와 바버라 박서(민주당) 후보 중 남성 사이에서 피오리나 후보 지지는 2포인트 앞섰다. 여성 응답자는 17포인트 차로 박서 후보를 지지했다.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유효 우편투표 하려면 서둘러야

선거를 5일 앞두고 우편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여유있게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한다.

연방우정국은 우편 투표용지를 일찍 발송할 것을 조언했다. 우편 투표용지는 11월 2일 오후 8시까지 각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도착해야 한다.

우정국측은 “세금보고 서류와 달리 11월 2일로 봉투에 날짜가 찍혀도 소용없다”며 “반드시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2일 오후 8시까지 접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처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관리국 사무실이나 투표 장소에 직접 가 이날 오후 8시까지 제출해도 된다.

선거 당일까지 조기투표도 가능하다.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5시, 30~31일 오전 8시~오후 4시 LA선거관리국 본사(12400 Imperial Hwy., Norwalk, CA)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찬반 광고전쟁’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를 결정하는加州 주민발의안 19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수많은 비용을 들인 찬반 광고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LA타임스는 선거 전 마지막 주에 접어들자 찬반을 놓고 TV, 라

디오, 캠페인 홍보가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하는 캠페인은 26일부터 LA지역에서 케이블TV 캠페인 광고를 시작했다. 찬성 캠페인은 선거 당일까지 방영되는 이 광고를

위해 17만달러를 썼다. 찬성 캠페인과 마약정책연합(DPA)은 광고에 총 150만달러를 투입했다.

발의안 19를 반대하는 캠페인은 지난 23일부터 북가주에서 라디오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반대 캠페인은 레딩과 치코 지역 광고를 위해 1만달러를 지출했다.

캘리포니아상공회의소도 25만달러

를 들여 지난 주부터 LA와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라디오를 통해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加州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300만달러를 투자한데 이어 지난 25일 100만달러를 추가로 내놓았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솔레어 콘도 분양 ‘할로윈 마케팅’ 27일 LA한인타운 최고층 콘도인 솔레어 콘도미니엄 분양 사무실이 할로윈을 맞아 마케팅의 일환으로 해골 모형을 비롯한 할로윈 코스튬들을 장식해 할로윈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다. 신현식 기자

→ 1면 ‘세무감사’에서 이어집니다

김승열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회장은 “세무 감사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소식을 회원사로부터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석호 CPA도 “세무 감사를 받는 고객의 수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이처럼 세무감사가 강화된 것은 전통적으로 불황일 때 탈세 행위가 많아져 정부에서 세무 감사를 강

도 높게 시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세금 보고를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잉여 인력들을 세금 감사에 투입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다.

저스틴 오 CPA는 “지난해에 100건 중 1~2건이 세무 감사를 받았다면 올해에는 3~4건으로 늘었다”며 “특히 영업 손실을 보고한 업체나 25만달러 이상 순익을 올린 업체에 대한 세무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무 감사가 강화되면서 벌금을 받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한인 CPA는 “세금보고 누락, 부정확한 세금 보고,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자신이 세금을 축소 보고한 것이 걱정이 된다면 수정보고한 후 벌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加州 ‘백일해’ 환자 6000명 넘어

호흡기 전염병인 백일해(pertussis) 환자가加州 지역에서만 6000명을 넘어섰다.

27일加州보건국에 따르면 올해들어 26일까지加州내에서 보고된 백일해 환자는 6257명에 달했다.

이는 백일해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1950년 이래 최고치다.

1950년 당시 백일해 환자수는 6613명을 기록했다.

加州보건국 관계자는 “올해들어 백일해 감염환자중 10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태어난지 3개월 미만의 유아들로 이중 9명이 히스패닉계였다”며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나 노약자들은 반드시 백일해 예방접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LA국제공항 이용객 소폭 증가

3분기 1600만여명 2.9% ↑

LA국제공항(LAX)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LAX가 27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3분기(7월~9월) 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시기 1555만2711명에서 1600만6102명으로 2.9% 증가

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용객 총 4434만3103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51만2710명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특히 3분기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각각 2.7%와 3.4% 증가했다. 구혜영 기자

제일약국 (JAY'S DRUG)
약사: 신재권

(323)731-4696 3170 W. Olympic Bl. #D LA, CA 90006 (올림픽사거리)

당뇨병 조절 777 운동
당뇨병 조절 웹페이지 안내 | www.diabetes777.com

- ◆ 혈당검사기, 혈압기 세일
- ◆ 처방약 엄가조제
- ◆ 당뇨환자 한국어 식이요법 배부
- ◆ 메디칼 보험 환영, 화장품, 선물용품
- ◆ 정기 당뇨병 세미나 개최

아깝없이 다~주는 활어전문 '다-다' 초

꼬리표 달린 제주한방광어 특가세일 \$69.99
+ 크라운 로얄 1병 (170ml)

참선문 양념스림

생선조림

산나

퓨어/오일

파기

생굴 4pcs

최속 \$29.99

회

활어 모듬사시미 활어모듬 사시미 1인분 \$25(4인 이상), 미모듬것을 다, 드립니다.

죽 + 문어초회 + 사리다 + 콩치구이 + 매운탕 + 소라 or 고동 + 산나 + 생선조림 + 오징어 초회 + 애자매매 + 홍어찜 + 매추리알

\$59.99

활어 전문 다다 323.766.2000

월~토 4:00pm ~ 11:00pm
일,요일 3:00pm ~ 10:00pm
3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 A